



멀티 스포츠 용품 브랜드 ‘데카톤’ 롯데마트 제타플렉스에 1호점 오픈

롯데마트가 7일 서울 잠실 제타플렉스 3층에 데카톤 1호점(사진)을 오픈했다.

데카톤은 전 세계 60개국에서 약 17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랑스의 멀티 스포츠 브랜드로 스포츠 용품을 직접 디자인, 생산, 유통해 품질 높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1호점은 2430㎡ 규모로 구기종목, 라켓 스포츠, 승마 등 40여 개 스포츠 종목과 연관된 8000여 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한다. 종목별 체험존을 운영해 고객 경험의 기회를 넓혔다. 또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자체 기술자를 배치하는 등 제품 애프터서비스(A/S)에도 신경을 썼다. 오픈 기념으로 9일까지 체험존 이용 고객과 5만 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등산 백팩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초기증상이 거의 없는 녹내장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예방

녹내장은 시신경에 손상에 따른 시야장애가 진행되는 질환이다. 녹내장은 크게 개방각녹내장과 폐쇄각녹내장으로 나눌 수 있다. 폐쇄각녹내장은 급격한 안압 상승으로 인한 안구 통증, 두통, 시력저하,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이 있다. 반면 녹내장 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방각녹내장은 발병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이 있으면 이미 환자 스스로가 심각성을 느낄 정도로 시신경에 손상이 일어난 후다. 녹내장은 평상시에 발병에 대비해 예방책을 강구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법은 안압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더 이상의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개방각녹내장은 일반적으로 안약을 이용한 약물치료로 안압 조절을 시도한다. 약물 처방만으로 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레이저치료나 수술치료를 시행한다. 폐쇄각녹내장은 약물치료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레이저치료를 초기부터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레이저치료는 안과에 녹내장 관련 장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안과치료여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녹내장 전문의를 통해 받는 것이 좋다.

녹내장은 만 40세 이상이 되면 주기적으로 안과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고도근시, 손발이 차거나 저리는 증상, 편두통이 반복되는 사람, 스테로이드 안약 사용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전신적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번씩 안과검진을 받아야 한다.

부천연세성모안과 양현 원장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2025년 콘텐츠 매출 5조원 목표”…KT그룹, 미디어 사업 팔 걷는다



KT가 2025년 매출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그룹의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본격화 한다. 7일 미디어데이에서 콘텐츠 사업 성장전략을 발표한 김철연 KT스튜디오지니 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 윤용필 스카이TV 대표(왼쪽부터).

KT스튜디오지니 오리지널 콘텐츠 쏟아진다

드라마 라인업 24종 전격 공개
스카이TV 채널 리브랜딩 개편
밀리의 서재 기업 공개 등 추진
CJ ENM 등 손 잡고 제휴 확대

KT가 지적재산권(IP) 확보부터 콘텐츠 기획·제작, 유통으로 이어지는 미디어 사업을 본격화 한다. KT스튜디오지니는 히트작 드라마를 선보이고, 스카이TV는 채널을 리브랜딩하는 한편 콘텐츠 확보에 5000억 원을 투입한다.

KT는 7일 KT스튜디오지니, 스카이TV와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베서더 호텔 에서 미디어데이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 사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5년 그룹의 미디어·콘텐츠 매출 5조 원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오리지널 드라마 다수 공개

KT는 올해 KT스튜디오지니의 ‘콘텐츠 제작’과 스카이TV의 ‘채널’을 중심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우선 KT스튜디오지니만의 ‘메가 히트작’을 만들 계획이다.

이날 총 24개의 오리지널 드라마 라인업을 공개했다. ‘구필수는 없다’부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굿 잡’, ‘얼어죽을 연애 따위’ 등이 올해 방영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도 연출과 작가 참여 소식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작품을 다수 제작 중에 있다는 것이 KT스튜디오지니 측 설명이다.

스카이TV는 미디어지니와 함께 양사의 핵심 채널을 ‘ENA’(Entertainment+DNA) 패밀리 채널로 리브랜딩한다.

스카이TV의 대표 채널인 ‘스카이’는 ENA로 새롭게 론칭하고, ‘NQ’는 ‘E

NA플레이’로, 미디어지니의 ‘드라마H’와 ‘트렌디’는 각각 ‘ENA드라마’와 ‘ENASTORY’로 변경해 채널 특성에 맞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스카이TV는 또 ‘강철부대’, ‘나는 SOLO’ 등 오리지널 예능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3년 동안 총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30여 편의 드라마를 확보하고, 300편 이상의 예능을 자체 제작해 채널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KT스튜디오지니를 중심으로 콘텐츠 사업이 본격화되면 ‘밀리의 서재’ 기업공개(IPO) 등도 추진한다. 또 가입자·매출 증대 효과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3조6000억 원 수준의 그룹 미디어 매출을 2025년 5조 원 수준으로 30% 더 끌어 올린다는 것이 KT의 목표다.

●국내의 사업자와 제휴 확대

국내의 사업자들과의 제휴협력도 확대한다. KT는 지난달 CJ ENM과 콘텐츠 분야 전방위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그 외 다양한 사업자들과도 협력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KT스튜디오지니를 중심으로 우수 제작역량을 가진 사업자들과 공동제작을 추진하고,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콘텐츠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부 협력뿐 아니다. 통신서비스 등 KT그룹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차별화 경쟁력을 발굴할 예정이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은 “미디어 플랫폼 사업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 사업에서도 성장을 이어가고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고성환 방송대 신임 총장 “원격교육 중심 대학 앞장”

한국방송통신대 제8대 총장 취임식

‘먼저 온 미래 실현하는 대학’ 강조
총장 임기는 2026년 3월 3일까지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는 7일 서울 중로구 동송동 방송대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고성환 제8대 총장(60)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남철 전 방송대 총장,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이상진 전 교육부 차관, 장소원 국립국어원장, 오종남 김앤장 고문, 차광은 차병원 고문,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박인주 방송대발전후원회 회장, 장재진 오리엔트바이오 회장, 성준후 방송대총동문회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 신임 총장은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1순위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3일까지다.

고 총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강대 연구교수, 한국어세계화재단 수석연구원을 거쳐 2003년부터 방송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연구 활동에 매진해왔다. 또 교무부처장, 교양교육원장, 인문과학대학장, 통합인문학연구소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쳐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성환 한국방송통신대 신임 총장은 7일 열린 취임식에서 “‘먼저 온 미래를 실현하는 대학’과 ‘원격 교육의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한국방송통신대

나다는 평가다.

고 총장은 선거 과정에서 ‘뉴노멀시대, 대학교육의 새로운 표준’이라는 비전과 함께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학습환경 혁신 ▲교직원 처우 개선 및 복지 강화 ▲교육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 강화 ▲콘텐츠 자체 제작 역량 ▲대의 공유협력 강화 ▲투명하고 열린 인사 시스템 구축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강화 ▲책임·분권적 총장직 수행을 위한 제도(총장 중간평가제, 읍부즈퍼센트, 미래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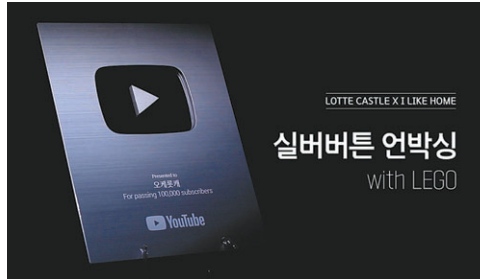
고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먼저 온 미래를 실현하는 대학’과 ‘원격 교육의 중심

대학’을 강조했다.

고 총장은 “방송대는 지난 50년 동안 국내 유일의 국립 원격대학으로 고등평생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며 “이제는 이를 뛰어넘어 ‘원격교육의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고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교육이 일반화되면서 방송대의 위상이 점점 약화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기의 시기가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도약할 수 있는 때”라며 “우리가 먼저 변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구성원 모두가 깨달아야 획기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롯데건설 ‘오케롯케’ 실버 버튼 획득

롯데건설은 7일, 유튜브 채널 ‘오케롯케’가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하고 실버 버튼을 획득(사진)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실버 버튼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을 달성한 채널을 대상으로 유튜브의 엄격한 채널 심사를 거쳐 수여된다. 롯데건설은 실버 버튼 획득 기념으로 레고 스톱모션 유튜브 ‘I LIKE HOME’과 협업해 ‘롯데캐슬×레고 스톱모션’ 영상을 공개했다. 수작업으로 탄생한 특유의 아날로그적 매력에 특징인 이 영상은 눈으로 보는 ASMR(소리의 자극을 중시하는 영상)로 불리며 최근 MZ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전자, 1분기 매출 77조원 기록

삼성전자는 7일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1분기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4조1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6%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 영업이익도 50.32% 증가해 2018년 1분기(15조6400억 원) 이후 1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는 반도체 사업의 예상 밖 선전과 ‘갤럭시S22’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